북스

Books

"반갑다, 최고 권위 로마史 완역본"

로마제국 쇠망사 1·2

에드워드 기번 지음·윤수인 등 옮김

로마하면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등장하는 금속제 갑옷을 입고 방패와 필룸(창), 글라디우스(단검)로 무장한 보병부터 떠오른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 하지만 전쟁으로만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었다. 로마의 전쟁관은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게 최선(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이라는 '손자병법'의 전술과 닮아있다.

로마는 전쟁에 앞서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민족과 도시 국가에게는 땅과 곡식을 줬다. 스페인, 북아프리카, 이집트 등도 전쟁보다 로마 시민권을 원했고, 로마는 피를 흘리지 않고 그들을 복속시키며 영토를 넓혀갔다. 그렇다면 강한 군사력과 실용주의 노선으로 무장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뭘까?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1737~1794)이 저술한 '로마제국 쇠망사'의 완역본이 출간됐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로마제국 쇠망사'의 주요 부분을 발췌했거나 일본어 번역판이 몇차례 소개됐었지만 완역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책은 4천700여 개에 달하는 주석 중에서 글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350개를 제외하고 모두 번역됐다. 이번에 제1, 2권이 먼저 나왔고 2~3개월 간격으로 나머지 3, 4권과 5, 6권이 출판될 예정이다.

흄(1754~1762)의 '영국사'와 함께 최고의 역사서로 꼽히는 기번의 이 책은 국내에서만 200만부가 넘게 팔려나갔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의 뼈대가 됐다. 또 육당 최남선의 수필에도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는 기번의 로마제국 쇠망사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구절 등장할 정도로 시공을 초월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기번이 1776년부터 1788년까지 12년에 걸쳐 쓴 이 책은 로마 제국의 전성기부터 쇠락하기까지 약 1천400년 간 의 역사를 담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로마제국이 쇠망한 원인으로 지도자층의 부패와 타락, 기독교의 정치세력화 등을 든다.

하지만 기번은 '왜 로마가 멸망했는가'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장기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는가를 물어야한다고 했다.

로마의 쇠망은 하나의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수많은 요인이 얽혀 작용한 결과였으며 로마제국의 전성기가 곧 쇠망의 시작었다고 말한다.

1권은 기원후 96년 네르바 황제에서 시작해 5현제 시기를 소개한다. 오현제 시대(트라야누스~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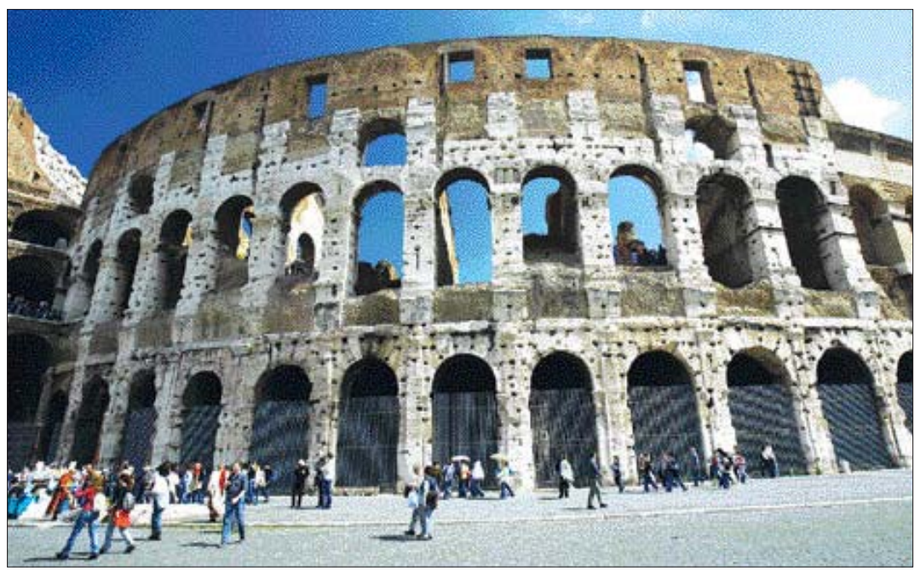
저자는 최전성기에서 쇠퇴의 징후를 발견한다. 4세기부터 로마인들은 교회, 사원, 도서관, 법정 등을 찾기 보다는 목욕탕, 헬스클럽, 극장, 서커스장(콜로세움) 등에서 소비와 오락에 탐닉했다. 반면 군역에 시달리던 농부들은 기독교에 몰두하면서 전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됐다. 여기에 야만족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로마는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즉 풍요가 퇴폐와 부패를 불러온 것이다.

책은 서구의 시선에서 야만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슬람교도들이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다루는 등 기번의 냉철하면서도 균형잡힌 시각을 느낄 수 있다.

또 로마가 하루 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이 로마의 멸망도 수많은 징후의 누적 속에 진행됐다며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쇠망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을 남긴다.

〈민음사, 1권 3만원·2권 2만2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검투사들의 경기장으로 잘 알려진 콜로세움은 '팍스 로마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음악·언어로 보는 진화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

음악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만국의 공통 언어다. 하지만 음악이 언제,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영국 레딩대학 교수이자 인지고고학의 선두 주자인 스티브 미슨이 음악과 언어의 관계부터 시작해 음악이 인류의 진화에 끼친 영향을 살펴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으로 펴냈다.

저자는 'Hmmmmm' 이론을 내세워 목소리의 높낮이나 길이 등 음악적 요소가 조합되면서 원시 언어가 생겼고 인류의 유전자 속엔 이미 음악을 만들고 듣는 성향이 심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인간의 언어 능력에 얽힌 비밀을 풀기 위해 전공인 고고학은 물론 진화학, 뇌과학, 언어학, 민속음악학, 발달심리학 등 인접 학문까지 두루 살폈다. 〈뿌리와 이파리〉

/이은미기자 emlee@

이제, 그들의 피와 눈물을 이야기하자

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

임경석 지음

1913년부터 독립운동에 참가했다 1919년 3월 체포돼 1년 반 동안 옥살이를 했다. 1924년 일본 궁성(宮城)에 폭탄 3개를 던진 김지섭 의사를 배후에서 도운 인물이다. 2004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그는 누구일까?.

목숨을 내걸고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혁명가 윤자영의 일대기이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잊혀졌다. 그가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 사회주의운동사 전문가인 임경석의 '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 대한 기록'은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 8인의 일생을 추적하고 있다. 윤자영, 김단야, 임원근, 박헌영, 강달영, 김철수, 고광수, 남도부, 안병렬. 남북 분단 등의 이유로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이들 혁명가들의 고단한 개인사가 한 권의 책으로 소개됐다.

저자는 일제 사법당국의 심문조서, 판결문, 주인공들이 남긴 편지, 신문기사, 러시아의 문서철을 뒤져 이들의 '잊혀진' 일생을 되살려냈다.

이들이 꿈꾼 사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책은 아니다. 더 나은 인간적인 삶을 위해 현실의 거대한 권력과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들의 용기와 좌절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기록했다.

저자는 "해방 후 이념 대립으로 잊혀진 혁망가들이 됐지만 사회주의 운동이 민족 해방운동의 중요한 축이었다" 고 강조한다.

책표지만 봐도 이들의 슬픈 개인사는 충분히 느껴진다. 표지에는 이들의 이름이 옅은 색으로 일일이 쓰여져 있다. 잊혀진 이름이기에 책의 제목과 지은이는 선명한 색깔로 인쇄됐지만 이들의 이름은 보일듯 말 듯 희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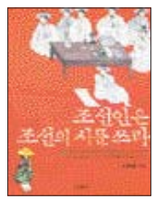
하지만 굴곡 많은 한국 현대사에서 결코 잊혀지지도, 잊을 수도 없는 이름들이다. 저자와 출판사는 이들의 이름을 희미하게 색칠하는 대신 점자 형태로 표지에 찍어 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흉터처럼, 눈 여겨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었던 이들의 이름을 통해 피 흘렸던 우리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비평사·1만2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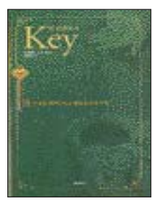
▲머저리 클럽='별들의 고향' '고래사냥'으로 유명한 소설가 최인호의 성장소설. 1973년 청소년 잡지 '학원'에 연재했던 소설 '우리들의 시대'를 현대감각에 맞게 손질해 재출간했다. 새마을 운동이 활발하던 197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고교생 6명의 꿈과 우정, 사랑을 그렸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2천원〉

▲니덕에 내가 산다. 문시가~=탤런트 안문숙의 어린 시절을 비롯해 어머니 강성임의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 라디오 DJ를 하면서 '문시기'로 불리게 된 사연부터 가슴 아팠던 짝사랑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실렸다. 〈펜하우스·9천800원〉



▲조선은 조선의 시를 쓰라=역사학자 이이화의 '인물로 읽는 한국사' 시리즈 세번째. 신소설의 선구자 이인직과 판소리의 아버지 신재효, 명문장가였던 변계량, 중국의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음악가 정율성 등 한국사 속의 시인, 소설가, 예술가 24명의 예술을 향한 열정적인 삶을 담았다. 〈김영사·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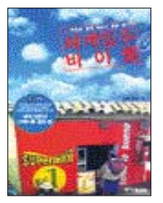
▲베니스의 개성상인 1, 2권= 1993년 첫 출간돼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오세영의 역사소설. 원판을 바탕으로 재구성해 새롭게 펴냈다. 네덜란드의 거장 루벤스가 그린 '한복을 입은 남자'에서 모티브를 얻은 팩션소설이다. 〈예담·각 권 1만원〉



▲잭 캔필드의 Key='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의 저자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원하는 삶을 끌어당기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길 마음만 준비 하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레·1만1천원〉

▲찔레꽃=새터민의 탈북 행로를 그린 정도상 연작소설. '겨울, 압록강' 등 2006년부터 2년간 각종 문예지를 통해 발표한 7편의 연작 단편을 엮었다. 순진한 북한 처녀 충심이 북한을 떠난 뒤 중국을 거쳐 남한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냈다. 〈창비·9천800원〉

▲상상력에 권력을?=축제 형태의 시위 문화, 정치 주체로 떠오른 10대와 여성 등 '촛불집회'와 닮은 점이 많았던 68혁명을 조명한 책. 68혁명 참가자들이 단절, 분열, 개혁의 실패, 고립 등 혁명을 이끌며 느꼈던 문제점 이야기 했다. 〈메이데이·1만8천원〉



▲세계 일주 바이블='세계 일주 클럽 5불 생활자'(www.5bull.net)의 8년간 정보와 노하우가 담긴 여행서.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198개국 260 곳의 여행지뿐만 아니라 여행일정, 예산 짜는 법, 짐 싸는 법 등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중앙북스·1만9천500원〉

▲박종호의 황홀한 여행=클래식 음악 애호가인 저자의 이탈리아 여행기. 오페라 페스티벌이 유명한 베로나,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로 꼽히는 라 스칼라 극장이 있는 밀라노 등 이탈리아 17개 도시를 둘러본다. 〈웅진지식하우스·1만4천원〉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수완지구 건물임대
호남최대의 신도시
1일 유동인구 30만명
모아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접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이동통신/약국/안경점/호프전문점/찜닭
점포앞 보도블록 300㎡있음
2층 340㎡ 170㎡
소아과/치과/내과/전문클리닉센타
3층 340㎡ 분할가능
영어/수학/논술/과학학원
4층 340㎡
피부관리/요가원
5층 340㎡
커피숍/스포츠센타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옥상 90㎡ 사용
2008년 12월 입주예정
명성공인중개사
임 대 문 의
016-611-3424, 011-625-0510

첨단월계공인중개사
☎(代)972-4585 핸 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사거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복지실버시설
◉첨단 공업지역내 공장매매 공장건물3층 910평, 대지 800평 신축준공2007년11월
첨단중심 상업매매
·정부지방청사 2008년 개청지 앞 314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정부지방청사 입구 이번도로,식당,음악학원 200평 매280만원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대6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월495만 매5억3천만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월480만 매4억8천만
·대70평 건120 원룸6 투룸3 주인 방3개 보1억2천만 월180만 매4억1천만
·대68평 건127평+주차장 투룸4 원룸8 보8800만 월300만 융4200만 매4억7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신기동 부영Ⓐ 부근 생산녹지 900평
·안청동, 비아 중흥Ⓐ 부근 생산녹지 900평
·오천동 공단 8번로부근 450평 700평 공장, 창고 적합
·북구 지야동 30m도로 인근 전후면 도로접 가든, 찻집, 창고, 공장 적합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062-226-0047~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소재지	명칭	면적/층	감정가	최저가
봉선동	라인광장	24/4층	6천	4천2백
중앙동	모아	52평/4층	2억2백	1억5천
두암동	라인동산	28/18	8천3백	5천8백
운암동	중흥2차	32/15	8천3백	5천8백
오치동	무등파크	42/12층	9천8백	6천8백
풍암동	대주파크	46/	1억8천	1억3천
일곡동	동아	37/17	1억5천	1억1백
화정동	한양	31/10	1억1천	7천7백
봉선동	쌍용	64/16	5억2천	3억4천
방림동	모아	35/3	9천	6천3백

▶상가건물/모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장성 삼서	132/277	4억6천	1억3천
북운동	44/200	6억3천	2억7천
쌍암동	242/779	28억	15억
신안동	82/254	8억4천	3억8천
봉선동 상가		3천3백	1천1백
궁동	371/652	95억	27억
봉선동	98/349	8억8천	5억6천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나주금천	193/309	5천4백	3천
오치동	56/63	1억4천	6천5백
서동	61/52	1억1천	6천2백
담양 대전	118/275	4천8백	3천4백
운암동	43/53	1억	5천6백
동명동	104/51	2억8천	1억6천
봉선동	48/58	1억2천	8천5백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원룸 오치동	107/144	3억8천	2억2천
원룸 신기동	57/93	2억5천	1억8천
원룸 화 순	92/156	3억5천	2억5천
원룸 일곡동	103/149	3억5천	1억8천
원룸 계림동	66/119	3억5천	2억5천
상가주택 양산동	160/320	74억	43억
상가주택 풍암동	65/164	3억5천	2억4천
상가주택 월계동	30평	2억4천	1억3천
상가주택 월산동	74/214	4억5천	1억8천
상가주택 금남로	83/325	19억	7억1천
상가주택 신정동	58/41	1억1천	7천8백
근린상가 광산동	74/286	11억7천	6억3천
근린상가 중흥동	241/507	15억	4억8천
근린상가 화정동	51/158	2억2천	
근린상가 송정동	290/237	11억3천	6억5천
근린상가 봉선동		8천5백	5천3백
근린상가 금호동		1억2천	1천8백
근린상가 봉선동		3천3백	1천9백
근린상가 월계동		5천	2천8백
오피스텔 신안동	제일 9평	3천5백	2천4백
오피스텔 월산동	등강 27평	1억2천	5천3백
오피스텔 금호월드	10평	2천8백	1천8백
오피스텔 치평동	렌트파아	5천5백	3천8백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장덕동	517/406	9억3천	4억2천
목동	2000/1434	35억	22억
담양월산	1533/243	3억5천	2억5천
나주세지	3687/3618	102억	73억
장성삼계	1148	18억	10억

법원경매 전문회사
-■ 앞서가는 사람들- (주)옥선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경매재테크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성립여부, 낙찰가에상분석 예고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가장임차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주)옥선코리아 대표 1 : 1무료상담
▶투자수익부동산 010-3666-8446

소재지	지목	면적/대/건(평)	감정가	최저가
해남군 산이면	전	2508	8300만	5800만
무안군 출포면	전	1979	5300만	3700만
함평군 월아면	전	2935	7900만	5500만
해남군 산이면	전	1143	3400만	2300만
용봉동	근린시설	150/177	8억8800만	6억1900만
삼계면 사창리	근린시설	275/169	3억2000만	1억4300만
담양군 봉산면	공장	1962/326	11억3400만	8억3500만
광산구 장덕동	공장	517/406	9억3000만	4억1600만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691	2억2200만	1억1300만
영암시 태간면	양어장	1696	5000만	3500만

▶임대수익부동산 010-3666-8446

소재지	지목	면적/대/건(평)	감정가	최저가
소촌동 라인1차	아파트	24	5600만	3920만
중흥동	숙박시설	65/181	3억4000만	1억9100만
봉선동	근린시설	98/350	8억8100만	5억6400만
유촌동	근린주택	61/133	3억3900만	2억1600만
도산동 (분식점)	근린상가	12	5800만	4000만
일곡동	원룸	103/148	3억5200만	1억9700만
일곡동	원룸	56/100	2억7900만	1억5600만
계림동	원룸	66/120	3억8100만	2억6700만
동림동	원룸부지	104	2억8400만	1억5900만
송정동	원룸부지	60/40	2억2300만	1억2500만

▶실수요자부동산 010-3666-8446

소재지	지목	면적/대/건(평)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옥동	공장	2000/1434	34억4800만	22억700만
광산구 장덕동	공장	1500/1454	31억2000만	21억8400만
도산동 무미	아파트	24	5300만	3710만
마륵동 희망가	아파트	32	1억7200만	1억1900만
월계동 금호	아파트	34	1억1000만	7700만
화정동 태영	아파트	23	5200만	4160만
송정동 모아	아파트	24	6700만	4690만
임월동	주택	144/34	1억476만	7330만
고서면 원갈리	주택	103/38	8100만	5700만
대전면 대차리	주택	78/37	4800만	3300만

국민공인중개사
핸 011-635-7939, 010-2810-6103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맞은편 2층)
건 물
◉아름아가리 5억5천 미술학원적합 건물 대170P 건160P 지상4층 지하1층 급매
◉푸짐빌딩 정읍 1발 정읍의 중심 대165P 건150P 지상4층 즉시 입주가능
◉7억8천 빌딩 급매 호남대 부근 광산구 서동동 대270P 건267P 보1억5천 월450만원
◉13억9천 빌딩 20×10m코너 전대 후문 대110P 건320P 보3억3천 월900만
◉12억원짜 8칸 빌딩부지 30×8m코너 보증금 1억 월650만원 포함
◉13억고시원 대110P 건300P 룸30개 월세1,500만원
◉상업지역 13억 빌딩 대140P, 건510P 보증금 2억 월세850만원
◉17억5천 1층 점포 12칸 병원부지 보증금 1억5천 월750만원포함 아파트 7,000세대 상권
◉22억 마트겸 투룸매매 대250P 건300P 1층 대형마트 투룸 51개 주택형도 지하1층 지상7층 보2억3천만원 월1,800만원 포함
◉28억 상업지역 빌딩 대185P 건390P 보증금 5억 월1800만원
◉41억 상업지역 빌딩 대200P 건1,100P 보1억 월세2,000만원
◉47억 빌딩 대600P 건1000P 보10억 월세3000만원 융자20억 포함
◉63억 빌딩 대320P 건800P 보21억 월세4000만원
◉120억 공장부지 공업지역 12,000P 현재 공장 운영중
주유소 전문중개
◉8억 주유소 급매 대300P 35m도로변
◉13억8천 시내 주유소 급매 대400P 일매출 800만-900만원
병원부지 전문중개
◉13억 병원 약원용 건물 급매 대115P 건420P지하 1층 지상5층
땅
◉각화동 정비 공장부지 600P 상업지역 35m 도로접 P당 270만원
◉6억 사철 급매
곡성 대2000P 건200P 광주에서 30분
◉담양 금성 1,800P P당 10만원 주택포함 남향
◉순창 금과 2,780P P당 5만원 계획관리지역
◉순창 금과 4,700P P당 4만원 계획관리지역
◉청평 4,200P 9억 제1종 주거지역
◉골프연습장 부지3 8,000P 자연녹지 복구 P당 50만원
◉정비공장 창고부지 자연녹지 소매점 250P P당 70만원
◉과수원 묘지가능 그린벨트 임야 1,800P 남향경사도 15도미만 진입로 있음 산성촬콜라스에서 10분거리 P당 5만원
◉동림동 생산녹지 800P 대비8억
◉담양 임야 25만P P당 3,000원
◉담양 관리지역 2000P 2차선 도로접 임야 P당 9만원
◉광산구 상가용 관리지역 2000P P당 10만원
◉대덕면 7,000P 3억7천 고속도로주변
◉골프연습장부지 3,000P P당 120만원 30m 도로접
◉임자부지 2,700P P당 7만원
◉목과소재지 2억 전원주택·과수원 1,500P 2억
◉사월동 주거지역 아파트·빌라부지 1,700P 평당120만원
임야·전·농림·창고·대 사무실·사 급매
공장부지 4,000P 건물1,400P 매매가 48억
공장 급매
각화동에서 10분 6억7천
대지1,400P 건물 500P
APT 1800세대 마트겸 목욕탕
대120P 건270P 현재 주인직접중 매12억